



“2021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 말씀(Read) · 기도(Pray) · 감사(Give Thanks)”

연중 제22주일

2021년 8월 29일(제496호)

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TEL 925-600-0177 / FAX 925-237-8423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 심 단 체	레지오 마리아: 온라인
	올드레아: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평일 미사 후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평일 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 아 세 례	일시 중단	

입당_51 봉헌_218 성체_151, 165 파견_479 / 해설_권현정(안젤라) 제1독서_문성익(요한사도) 제2독서_송경혜(아네스)

입 당 송 | 시편 86(85),3,5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제1독서 | 신명 4,1-2,6-8 Deuteronomy 4:1-2, 6-8

화 답 송 | 시편 15(14),2-3,7,3,4-4,7,5(◎ 1가)

Psalms 15:2-3, 3-4, 4-5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 The one who does justice will liv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Whoever walks blamelessly and does justice; who thinks the truth in his heart and slanders not with his tongue.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Who harms not his fellow man, nor takes up a reproach against his neighbor; by whom the reprobate is despised, while he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 Who lends not his money at usury and accepts no bribe against the innocent. Whoever does these things shall never be disturbed. ◎

제2독서 | 야고 1,17-18,21-22,27 James 1:17-18, 21-22, 27

복음환호송 | 야고 1,18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 The Father willed to give us birth by the word of truth that we may be a kind of firstfruits of his creatures. ◎

복 음 | 마르 7,1-8,14-15,21-23 Mark 7:1-8, 14-15, 21-23

영성체송 | 시편 31(30),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 - 님 당 - 신 의 천 막 에 누가 머 물 리 이 까?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윤정의 알폰소, 이원숙 글라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며 따져 묻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 이야기를 읽다가 너무 손을 씻어 지문이 사라졌 다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배우인 그는 팬데믹으로 공연 기회가 줄어 음식을 배달했는데, 고객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소독제로 손을 씻었다는군요. 다행히 요즘 공연을 준비한다는 그는 끈질긴 팬데믹의 위협에도 무사히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요. 부디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고 다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은 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조상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어째서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은 위선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그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다.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곧 ...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받은 법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법은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잘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치열하게 율법을 살고(바리사이), 연구한(율법 학자) 사람들 때문에 율법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복음 속의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은 율법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단지 외적인 형식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하게 규율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이고 연민이 부족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의 우려남 없는, 형식에 치우친 그들의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 사도의 편지는 생명의 법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하느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 궁핍한 형제를 돕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 '고아와 과부'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사정을 살펴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 무관심 속에 고립된 형제를 찾아 만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앙입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KOREAN B.B.Q 영동 순두부  7268 San Ramon Rd. Dublin, CA 94568 925-551-082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 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혁신적인 항노화 제품과 훌륭한 사업기회  민주란 아우레아 253-468-3030 jooranmin@gmail.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신세계 여행사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5분 묵상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옛날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르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내기를 하여 이기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처단한 후, 그 보복이 두려워 죽기만을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천사는 천상의 음식을 건네주어 그로하여금 호렙산에서 주님을 뵈고 새로운 힘을 얻어 예언의 활동을 계속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임종환자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곡기(穀氣)'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특히 노환으로 인해 임종이 가까워진 어르신들, 어느 순간까지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손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 가까이 가져다드리면 어렵사리 드시곤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르면 손가락을 가져가도 입을 짝 다무십니다. 고개를 저으십니다. 곡기를 끊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체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다보니 건강은 순식간에 악화됩니다. 의식도 점점 몽롱해집니다. 그리고는 며칠 못 넘기시고 임종을 맞이하십니다. 삼 시 세끼 잘 먹어 줘야 흡수된 음식물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며칠 밥 못 먹으면, 곡기 끊으면 그 길로 내리막길이요, 황천길입니다.

'육신의 곡기'도 이처럼 중요하지만 '영혼의 곡기'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곡기'는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교박교박 챙기지만, '영혼의 곡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영성생활에도

곡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곡기란 다른 아닌 성경말씀과 성체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경말씀을 꼭꼭 씹어 드셔야만 합니다. 매일 무상으로 우리에게 건네는 성체를 지극한 정성으로 받아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말씀과 성체로부터 멀어진다면, 마치도 곡기를 끊은 임종환자처럼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고사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말씀과 성체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쩌면 그는 살아 있어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우선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만사가 시시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감사거리 앞에서도 매사에 불평불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영혼의 곡기를 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삼시세끼 밥 먹듯이 지속적으로 영혼의 곡기를 드셔야만 합니다. 일상의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천사는 오늘도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고 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영혼의 곡기를 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주간 성경 말씀과 성체 중심의 삶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숨 쉬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굿뉴스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성 요셉의 해
PROCLAMATION OF THE YEAR OF ST. JOSEPH
기간: 2020년 12월 8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p>  <p>책성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직통: 510-283-6310 CELL: 510-776-5856</p> <p>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 성시간 안내

- 9월부터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에 성시간이 있습니다.
- 성시간은 우리를 위해 수난하신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 드린다는 의미의 예수 성심 신심 행사입니다.
- 말씀 전례와 성체기도문, 성체강복으로 이루어지는 성시간을 통해 성체께 더욱 친밀하고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합니다.

■ 사랑의 모후 꾸리아 9월 월례 모임

- 일정: 9월 2일(목), 오후 8시 - 9시 30분
- 대상: 각 브레시디움 간부들
- 참가 방법: 꾸리아에서 지정한 Zoom 미팅 (Meeting ID : 674 039 3221, Password : 320860)
- 준비물: 묵주, 레지오 교본, 기도문

■ 주일학교 개학 및 등록

- 예수님의 은총 아래 새 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할 2021-22 주일학교 등록을 받습니다.
- 개학: 10월 3일(주일)
- 장소: St. Elizabeth 교실과 체육관
- 수업 시간: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수업 후 11시 영어 미사 참례
- 등록기간: 9월 19일(주일)까지 (교중 미사 후 성전 앞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 등록 신청서: www.tvkcc.org/sundayschool20212022
- 문의: 주요한(425-281-6772, young.k.joo@gmail.com)
-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에 따라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하고 수업을 합니다.

■ 주일학교 교사 모집

- 2021 - 22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교사, 보조교사, 그 밖에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연락: 주요한(425-281-6772, young.k.joo@gmail.com)
- We are looking for volunteers to help with 2021 - 22 Sunday School. Please contact Young Joo (425-281-6772, young.k.joo@gmail.com) if you are interested. We are looking for teachers, assistant teachers, or people who can help with other Sunday school work.

■ 북가주가톨릭성서모임에서 아래와 같이 (비대면/대면) 그룹성경공부 모집

과목 (대상)	창세기 (전체 교우)	탈출기 (창세기 수료자)	요한 (마르코 수료자)	사도행전 (요한 수료자)	Eng.Acts (John 수료자)
요일/시간	토/오후	월/오전	월/저녁 수/오전	주일/저녁	목/저녁
시작일	9월 4일	9월 1일	8월 30일, 9월1일	9월 5일	9월 2일

- 신청: 조경아 글라라 (408-701-7144/nccblm@gmail.com)
- 모집 기간: 8월 한 달간 주로 공지와 함께 모집
- 각 그룹 교재비: \$10

■ 강화된 Covid-19 예방 지침

- 8월 2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각종 모임에서 음식 나누기를 자제합니다.
- 반모임은 가급적 실외에서 합니다.
- 미사 전후 및 평화의 인사 때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782	\$340	\$1,100	\$80	\$80	\$3,382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흥기(8), 김홍락(7,8), 엄난희(9,10), 이용호(7,8), 장찬(8)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홍락(7,8), 엄난희(9,10), 이용호(7,8)
- **Bishop's Appeal**
김홍락(7,8), 엄난희(9,10), 이용호(7,8)
- **성전기금(Church Building Fund) 임대정**
- **감사헌금** 김형근, 이원숙


교황님의 9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양식

Universal Intentio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Lifestyle

우리 모두가 검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양식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이를 위하여 확고히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we all will make courageous choices for a simpl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lifestyle, rejoicing in our young people who are resolutely committed to this.

■ COVID-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각자 방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각 가정에서, 성당에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냅니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0분
- 평일(화, 목, 금): 오전 9시 - 9시 20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